



# 보 도 자 료



(주소) 16614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66 (전화) 031-231-7200

배포일: 2025.11.6. 보도일: 2025.11.7.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청년 생존기” 개최	5	3	<a href="http://www.ggcf.kr">www.ggcf.kr</a>	부 서: 예술본부 예술사업팀 담 당: 윤가혜 학예연구사 전 화: 031-231-0846, 0841

##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청년 생존기” 개최

- ▶ 2025년 12월까지 김포, 수원, 안산, 양평에서 네 번의 릴레이 기획전 개최
- ▶ 세 번째 전시, “청년 생존기”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11월 13일 개막
- ▶ 39세 이하의 경기 청년 작가 18인의 현대미술 작품 50여점 전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이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전시 《본업》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예술을 본업(本業)으로 삼아 지속해 온 예술인들의 작품을 조명하고, 그들의 창작 여정에 경의를 표하고자 마련되었다. 예술 창작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예술인들은 본업인 예술 외에 별도의 생업을 병행하고 있다. 《본업》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예술이라는 본질을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온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2025년 《본업》 전시는 총 네 개 지역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김포(7월), 수원(8월)에 이어 세 번째 전시가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린다. “청년 생존기”라는 소재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39세 이하의 청년 작가 18인이 참여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술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살펴본다.

전시는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섹션 1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에서는 청년들의 불완전한 상태, 애매한 위치, 경력의 초입에서 겪는 막막함과 같은 감정들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섹션 2 <낮에 버티고 밤에 작업해>에서는 생업과 창작을 병행하는 현실과

작가로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섹션 3 <‘나’라는 작가>에는 동시대의 시각언어로 자신을 바라보고 구체화하는 시도를 담은 작업들, 불안한 시기를 지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작업들이 전시되고, 마지막 섹션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아>는 ‘이대로 예술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목적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술을 실천하는 작업들로 채워진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불안정한 삶과 모호한 미래 속에서도 예술로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전시를 통해 예술이 우리 삶에 건네는 위로와 지속의 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가 시행 중인 정책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의 소득을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참여 공모를 통해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와 공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4월, 모집과 심사를 통해 전시분야 70인, 공연분야 35팀의 예술인을 선정한 바 있다.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곳곳에서 이들의 전시와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 전시 개요

- 전 시 명: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청년 생존기”
- 전시기간: 2025년 11월 13일(목) ~ 12월 21일(일) / 월요일 휴관
- 전시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 관람료: 무료
- 전시작품: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50여점
- 참여작가 : 감기배, 김이태, 김훈, 박노엘, 박다빈, 박현철, 서도이, 오요나, 유수진, 이경민, 이요, 이현지, 임철민, 정세윤, 정해민, 한슬기, 홍지연, 황혜인 (총 18인)
- 주최: 경기도 / 주관: 경기문화재단 / 협력: 경기도미술관 / 후원: (주)삼화페인트
- 관람문의: 031-481-7000

#### ■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 첫 번째 \_ 시소 : 일상과 이상 사이 2025. 7. 17. ~ 9. 7.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 두 번째 \_ 가변하는 공간들 2025. 8. 13. ~ 9. 17. 고색뉴지엄
- 세 번째 \_ 청년 생존기 2025. 11. 13. ~ 12. 21. 경기도미술관
- 네 번째 \_ 전쟁과 평화, 삶의 서사 2025. 12. 5. ~ 2026. 2. 22. 양평군립미술관

붙임1

전시 포스터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本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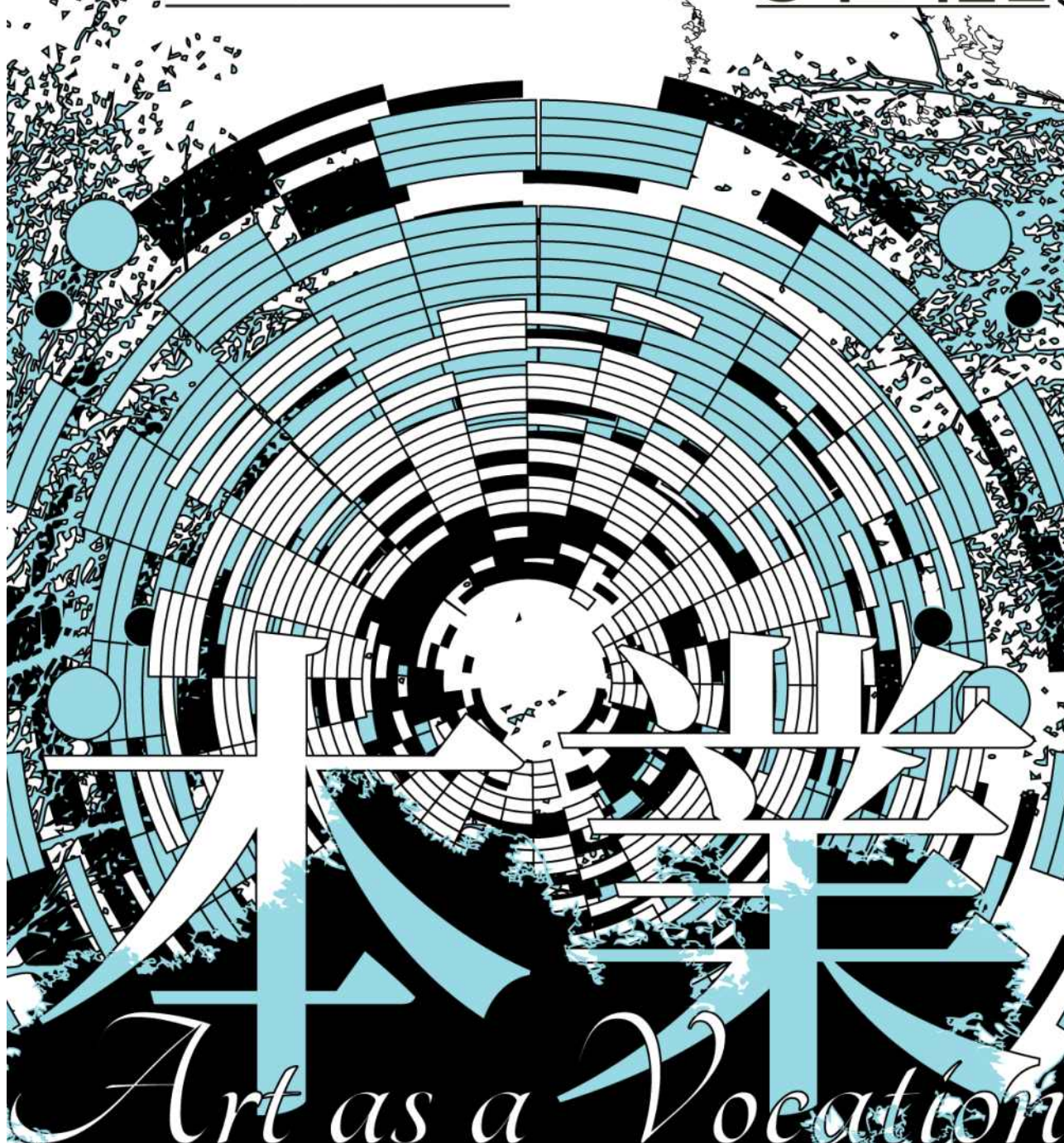
Art as a Vocation

청년 생존기

2025. 11. 13. Thu

— 12. 21. Sun

경기도미술관





황혜인, <무용 천재의 쉬어가기>, 2020,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9.8x79.6cm

황혜인 작가는 이주와 정착으로 인한 도시의 변화, 환경 문제와 실천, 일상과 예술의 가치 교환 등을 주제로, 사회와 그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한다. 이번 전시에는 예술가 개인이 본업과 부업의 구분을 넘어 각자의 주관과 선택으로 삶을 운영해 나가는 실존의 현장을 재현한 <예술가의 생존법> 연작으로 참여한다. 작가는 예술가들의 생활과 생업 현황을 수집·분석하고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의 작업 환경과 생계 환경의 상관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예술가의 사회적 생존과 역할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작품은 국내 유명 무용단의 수석 단원이자 유튜브 게릴라 무용단 리더, 프리랜서 안무가, 바이크샵 사장님, 그리고 새내기 아빠로 살아가는 '무용 천재'가 수리 중인 바이크에 올라 시운전하는 순간을 담은 것이다.)



임철민, 〈초록불〉, 2023, 장지에 수묵, 90.9×72.7cm

임철민 작가의 작품들은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먹과 붓만을 이용해 세밀하게 '농담(濃淡)'을 조절하여 도시 풍경을 담아낸다. 작품 속 장소들은 어둡고 텅 비어 더없이 쓸쓸하지만, 희미한 가로등과 한 줄의 빛이 있어 견딜만하다. 작가는 늦은 밤 귀가하던 중 버스 안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종점에 도착해 맞닥뜨린 풍경을 연작으로 그렸다. 깜깜한 도시의 변두리, 아무도 없는 길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두려움, 그리고 미약한 불빛에 기대어 안도한 경험을 작품에 담아 '어둡기 때문에 비로소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